

## 조천 송전선로 지중화 14년째 ‘묵살’

도-한전 제주지사 지난 2007년 사업 추진 공동 합의 예산 이유로 매년 연기... 행정에 대한 불신만 키워도, 최근 관련 예산 반영 연차 추진 피력 귀추 주목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사가 지난 2007년 제주시 ‘조천분기 송전선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공동 합의했으나 14년이 되도록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만 가중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제주자치도가 올해부터 조천분기 송전선로사업 일부 예산을 반영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사업 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김귀중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사장, 이재광 조천읍 민원인 대표는 지난 2007년 9월 20일 조천분기 송전선로사업 공동 합의를 작성, 서명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현재 추진중인 154kv 조천분기 송전선로 건설의 시

다. 한국전력공사와 시공사인 (주)삼영기업과 민원인은 서로 제기 한 가치분 소송과 민·형사상 고소·고발 등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이같은 합의문을 작성한지 14년이 지나고 있으나 제주도가 매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방치하면서 무기한 표류하고 있다.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당초 249억원이었던 사업비는 29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앞서 한전 제주지사는 2003년 제주화력발전소에서 조천변전소로 이르는 66kv송전선로의 전기공급 능력을 3배 이상 높이기 위해 예산 40억원을 투입하는 154kv 조천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착수했다.

이에 주민들은 송전탑 인근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와 주민 불편 등의 이유로 지중화를 요구했으나 한전은 사업비 20배 이상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등을 명분으로 지중화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했다.

이는 한전과 주민간의 소송으로 이어졌고 제주지방법원은 2007년 주민의 손을 들어 주면서 공동 합의문

작성으로 이어졌다.

이재광 민원인 대표는 “공동합의문 작성 이후 2014년 3월 7일 우군민 지사도 해 준다고 했고 원희룡 도장이 출범한 후에도 여러번 찾아가 요구했지만 예산이 없다는 말만 들었다. 그동안 도청을 방문할 때마다 담당자가 바뀌어 여러번 새로 설명해 주기도 했다”면서 “도지사가 주민들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후임 도지사까지 이것을 방치하면 누가 행정을 믿고 따르겠냐”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한전 관계자는 “제주도에서 예산을 확보하면 사업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며 “제주도에서 예산 편성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총 예산 290억원 가운데 145억원을 도가 부담하게 된다”며 “현재 예산 편성을 위한 이행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이번 추경안에는 반영시키지 못했지만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대라기자 bigroad@ihalla.com

### 4·3유적지 정비활용 방안 모색 현장점검 제주도·도의회 4·3특위

제주자치도와 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4·3유적지 정비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 4·3특위는 24일 주정공장 옛 터와 곤울동 잃어버린 마을을 방문해 4·3유적지를 점검하는 한편 현장설명회를 진행해 유적지 활용 방안들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주정공장 옛 터와 관련해 인근에 위령공원 조성을 추진 중이다. 도는 지난 2019년부터 내년까지 총 3단계로 나눠 기반 정비, 조형물 설치 등을 진행했으며 올해는 총 29억원을 들여 역사기념관을 건립하고 있다.

곤울동 잃어버린 마을과 관련해선



**여름 재촉하는 수국** 24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도로변에 터질 듯이 피어난 수국이 행인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여름을 재촉하는 꽃으로 유명한 수국은 풍성하고도 은은한 색깔의 꽃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다. 강희만기자

마을 전체가 전소된 아픔을 기억하고 이를 복원하기 위해 사유지 토지매입을 추진 중이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018년부터 사

유지 매입을 추진해 왔으며, 최종 토지주와의 협의를 통해 국비와 도비 등 총 10억원을 들여 지난해 16필지 매입(4489㎡)을 완료했다. 도는 앞

으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나머지 23필지(3726㎡)의 사유지를 매입하고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강대해기자

제28회 ‘한라환경대상’ 공모 접수 연장

제주특별자치도와 한라일보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라환경대상’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이번 한라환경대상은 ‘환경을 생각하는 모든 이’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환경에 대한 UCC 공모전도 함께 진행되오니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

시상 부문 및 상금	
▶ 참가자격 : 기업체, 단체, (공)기관, 학교, 교사, 학생, 개인 등 누구나 참여 가능	
한라환경 대상	
구분	포상 내용
대상	1명(팀) 상금 250만원
최우수상	1명(팀) 상금 100만원
우수상	1명(팀) 상금 50만원
학교 부문	학교(최우수) 1개교 상금 70만원
	교사(최우수) 1명(명) 상금 50만원
학생(최우수)	중등부 20만원
	초등부 20만원
선정방법	
▶ 참가자격 : 신청 시 제출한 세부 공적 자료에 대한 서면 심사 (단, UCC 공모전의 경우 촬영된 영상을 심사)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추천서 (소정양식) 1부	
▶ 한라일보 홈페이지 (www.ihalla.com)에서 양식 다운로드	
▶ 세부 공적 개요 및 증빙 자료 첨부	
▶ UCC 공모전의 경우 영상을 저장하여 제출	
신청일자 및 장소	
▶ 2021년 6월 30일(수) / 한라일보사	
접수 마감 및 문의처	
▶ 2021년 6월 11일(금)까지 방문 또는 우편	
▶ 이메일: shkim@ihallaiboo.co.kr로 접수	
▶ 한라일보 경영기획실	
☎ 750-2540, 2543 / 팩스: 750-2520	
* 자세한 내용은 본보 홈페이지 '제 28회 한라환경대상' 배너에서 확인 가능	

Jeju 제주특별자치도 · 한라일보

### 올해 제주 입도 관광객 400만명 돌파 전년 동기 대비 17.5% 증가... 4~5월 들어 급증

도·자치경찰, 공항 내 계도 등 방역 고삐 ‘바짝’

올해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 수가 400만명을 돌파했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올해 입도한 관광객은 지난 23일 기준 404만9338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334만 7385명보다 70여만 명이 늘어난 수치다.

특히 4~5월 들어 관광객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관광객은 106만9888명으로, 지난해 동월 54만1324명 대비 97.6% 폭증했다. 이달 들어서도 지난 23일까지 83만여 명이 입도해 지난해 동기 54만여 명 대비 52.7% 증가하는 등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이달 제주국제공항과 관광사업체, 유원지, 카지노업장 등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현장 계도와 제주안심코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입도 관문인 제주국제공항의 방역 강화에 중점을 둔다. 도는 1층 도착장 대합실에서 제주안심코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입도 관문인 제주국제공항의 방역 강화에 중점을 둔다. 도는 1층 도착장 대합실에서 제주안심코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안심코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입도 관문인 제주국제공항의 방역 강화에 중점을 둔다. 도는 1층 도착장 대합실에서 제주안심코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입도 관문인 제주국제공항의 방역 강화에 중점을 둔다. 도는 1층 도착장 대합실에서 제주안심코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 코로나19** 누적 확진 946  
24일 18시 기준

## 한림50주년 한림공원

열대지방에서만 볼 수 있는 “정열과 사랑의 꽃” 부겐빌레아를 30년 이상 온실에서 재배하여 「국내에서 유일한 부겐빌레아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흰색, 분홍색, 빨강색, 노랑색, 보라색 등 다양한 색상의 꽃들이 화려하게 피어 있습니다.

# 부겐빌레아 축제

### 5.22(토) - 6.20(일)

TEL : (064)796-0001~4 /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한림로300

❖ 한림공원과 함께 성장할 성실하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  
[모집직종 : 총무직 / 경리직 / 시설관리직 / 조경직 / 기념품판매직]